

중국 무력개입의 문화심리요인

: 한국전쟁 참전을 중심으로

서정경*

<目 錄>

- I. 서론
- II. 분석틀
- III.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분석
- IV. 결론

I. 서론

본 연구는 중국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문화심리요인의 영향력을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둔다. 외교정책 결정요인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특히 서구 학자들은 기존의 논의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외교정책 분석틀을 다양하게 제시해왔다. 그 흐름을 둘로 나뉘보면 첫째, 합리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부류의 학자들이 있다. 그들은 과거 행태주의적인 접근방법을 보완하고 국가의 대외행위에 미치는 구조(System)의 영향력에 착안하여 국가간 관계를 구조화하고 각 국가의 가능한 행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외교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의 논리성과 합리성에 대한 가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학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및 가치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신념 등 문화심리적 요소들도 외교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1) 그러나 탈냉전이후 각 국가의 국내정치, 국가간 상호작용, 정치문화 등 행위자(Actor)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지며 문화심리적 접근방법의 위치 또한 제고되고 있다. 사실 한 국가의 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 제시한 두 가지 분석틀이 공히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 연구는 후자의 분석틀에 의존하여 문화심리적 요인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분석틀 중 하나인 문화심리적 접근방법은 한 국가의 행위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힘으로서의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정치문화란 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신념,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각 사회는 서로 다른 역사, 전통, 언어, 관습 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상이한 문화적 양태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각 사회는 서로 다른 행동양식을 표출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은 외교정책결정과정에도 문화심리적 요인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초점은 외교정책결정에 문화심리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위에 제시된 “외교정책에 문화심리적 요인이 영향력을 갖는다”는 가설을 점검하기 위해 중국을 하나의 사례로 선택하였다. 중국을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 현 동북아 질서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이 향후 주요강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대 중국외교를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세계열강에 의한 세계질서 재편양상을 이해하는데도 긴요하다. 둘째, 중국은 전통적으로 남북한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21세기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현 한반도 정세는 중국의 한반도통일에 대한 정책과 향후 취할 입장의 변화가능성을 주목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중국외교정책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1) 이러한 관념적 요인은 측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관념 및 문화배경을 가진 국가가 동일한 정책이나 대외행위패턴을 보일 것이라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과학영역에서는 그다지 환영 받지 못했던 시기도 있다. W. B. Eagl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Drama in Foreign Policy," a paper presented at the 1988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olitical Psychology, Meadowlands, NJ (July 1-5, 1988).

의미를 가진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서구와 상이한 역사 및 독특한 정치문화를 지녀왔으므로 그들의 대외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심리 및 문화로부터 출발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외교정책 가운데 1950년 한국전쟁 참전정책을 사례로 분석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무력정책에는 일국의 의도 및 심리상태가 강하게 작용되기 마련이다.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의도와 목표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를 참전개입결정과정과 참전이후 전개상황에 미친 중국의 문화심리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합리주의적 시각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보다 설득력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문화심리적 접근법을 통한 중국의 한국전쟁에의 개입 및 영향력 발휘에 대한 연구는 향후 한반도사태의 변화과정 중 중국의 의도 및 행위양태를 예측 및 전망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 남북간 교류가 확대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평화적으로 민족통일의 대과업을 이뤄야 할 한국에게 있어 과거 중국의 한반도 무력개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는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전개될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분석틀

본 논문은 국가의 대외행위의 형성 및 전개에 작용되는 일국의 문화심리 요인으로 국가의 자아관(Identity), 세계관(World View) 그리고 역할관(Role Conception), 이 세가지를 상정할 것이다. 이는 국가의 고위정책결정자들이 자신의 자아관과 세계관으로부터 국가가 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역할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문화심리적 요인들에 기반한 '대본'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연극(대외행위)을 한다는 '드라마적 접근법'(Dramaturgical Approach)에 따른 것이다.²⁾

2) '드라마적 접근법'의 대표적 학자로는 에테리지(Etheredge)와 케르첼(Kertzer)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무대', '대본', '의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치가들이 외교정책결정과정 중 문화라는

1) 자아관

자아관이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활동의 하나로서 이를 통해 인간은 자기행위의 동기를 갖게 되며 나아가 외부세계를 인식한다. 한 단체 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아를 집단자아라 하는데 집단자아는 한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초월하는 메카니즘적 역할을 한다. 즉 한 인간(국민)의 자아는 집단(국가)의 자아에 의해 점령된 후 점차 원래의 자아를 탈피하게 되고 그런 후 나아가 집단의 명의로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³⁾

파이(Lucian W. Pye)는 중국인이 스스로를 매우 사랑하는 자아정신이 강하고 어려서부터 강력한 부권(父權至上) 밑에서 자라므로 자연스럽게 자아 중심적인 세계관을 발전시켜왔다고 하였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다른 종족을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종족을 중국 부권의 통치 하에 놓고 제압하는 관습을 형성해왔다는 것이다. 파이는 이러한 '남을 제압하려는 자아'와 '권위에 고도로 의존하는 자아'가 이중으로 작용하여 중국의 독특한 정치투쟁의 스타일을 형성했다고 주장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마오쩌둥이 광적으로 혁명을 역설하며 정적을 숙청했던 문화대혁명시기를 들었다. 한편 파이는 중국이 유교의 영향 하에 걸으로는 사심이 없는 무아(無我)관을 드러내고자 하며 이러한 의도적인 무아관은 중국의 독특한 의사소통방식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중국은 자신의 권위나 현상에 대해 도전자가 나타나면 일단 입으로는 강경하게

상징적 부호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라는 부호를 대량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의 특정 외교정책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각에 따른 연구들로는 D. I. Kertzer, *Ritual, Politics, and Power* (New Haven: Yale University, 1988); Lloyd Etheredge, "Is American Foreign Policy Ethnocentric: Notes Toward a Propositional Inventory," a paper presented at the 1988 Annual Meeting of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Washington, D.C (September 1-4, 1988); "Nuclear Deterrence Without the Rationality Assumption: Dramatic Requirements and the Agenda for Learning," a paper presented at the 1987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olitical Psychology, San Francisco (7 July 1987); *Can Government Learn: American Foreign Policy and Central American Revolutions* (New York: Pergamon, 1985); "President Reagan's Counselling," *Political Psychology* 5.4 (1984), pp.737-740.

3) 石之瑜, 〈论当代政治心理学思潮中的认同问题〉, 《国立台湾大学中山学术论丛》第11期 (1996.3) p.3.

대응하면서도 그가 자신의 정확한 의도를 다시 드러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전자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치가는 늘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려 하고 자신의 무아사상으로 인해 늘 타인에게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상대의 권위에 도전하려 할 때 혹은 다른 정적을 공격하고자 할 때 상대가 먼저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그것을 본 제3자가 상대에게 반대하도록 만들고 자신의 무아적 면모는 손상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그 사람의 권력을 결정짓는 것이었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곧 상류층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것이었으므로 혹 사리를 추구하는 것이 밝혀지면 사회적 지위의 정당성이 타격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

파이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슘위(石之瑜) 대만대교수는 한 비평문을 통해 파이가 중국인을 영원히 성숙하지 못하는 어린아리로 취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무아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것은 중국이 겉으로 자신의 무아관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사심이 없음을 타국에게 알리려고 노력한 것임을 강조했다. 슘위는 특히 중국의 도덕적인 면모를 드러내려는 체면외교의 동기는 중국의 교정책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의 도덕성, 체면 그리고 외교정책간의 강한 상관성을 주장하였다. 중국의 자아정체성은 중국역사의 전형적인 에피소드들에서 계승되어진 비교적 특수한 행위의 대본이므로 대본을 수정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은 중국인들에게 중국의 외교정책이 그만큼 더 의미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고 한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도덕성 레토릭(Rhetoric) 종종 드라마틱한 언사와 행동으로 구체화된다는 것이다.⁵⁾

4) Lucian W. Pye, *The Dynamics of Chinese Politics*, (Cambridge: Oelgeschlager, Gunn & Han, 1981).
5) 石之瑜, 〈白魯恂中國觀的評述〉, 《美國月刊》第八卷 第六期, 1993. 6.

2) 세계관

세계관은 자아가 먼저 확립된 후 형성되는 것으로 인간의 내부적 패턴을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동시에 외부세계에 대해 가지게 되는 일정한 관념을 말한다.⁶⁾ 세계관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한 인간이 사회적 인지과정을 통해 수없이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사회적 태도나 역할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나 기대는 인지패턴을 형성하며 정보의 여과 및 조직매커니즘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미지(Image)이다.⁷⁾ 동시에 인간은 간접적으로 자신의 이미지와 행위의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사회행동에 의의를 부여하게 되며 자신의 환경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⁸⁾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의 태도, 가치 등은 외부환경과 인간관계, 더 나아가 집단관계에 대한 그림을 형성하게 된다. 그 그림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자아정체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행동패턴 및 타인과 서로 기대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산출된 그 인간의 행동패턴과 타인과의 상호 기대감이 바로 그의 세계관이다. 광의의 세계관은 행위자의 우주관, 인생철학 및 윤리관까지도 포함한다. 세계관은 자아의 거울로서 세계관이 없으면 자아이미지도 없는 것이며 행동도 비일관적으로 혼란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⁹⁾

국가의 세계관이란 그 국가의 지도엘리트와 다수 국민들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이념적 상(像)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자국의 자아이미지 뿐 아니라 주변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까지도 포함한다. 세계관은 그 국가가 존재하는 사명 혹은 가치에 대한 개념을 뜻하기도 하며 이것은 외교행위에 동기와 의의를 부여하는 근원이 된다. 한 국가의 문화는 정책결정자들의 심리에 유사한 인상을 심어주며 정치

6) 张邓及, 〈中共的世界观与其对外政策的演变-历史整体的诠释与理念型的说明〉, 国立台湾大学政治学研究所硕士论文, (台北, 1994.6), p.9.

7) Cottam M. L. 〈Recent Development in Political Psychology〉, ed by Cottam M. L and Shih Chi-Yu : *Contending Dramas*, N. Y, Praeger press, 1992, p.3.

8) Ibid., p.7.

9) Johnathan H. Turner: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吴世辉译 社会学理论的结构 (台北: 桂冠, 1992), pp.395-396.

가는 이를 통해 어지러운 세계에 대해 의의를 부여한다. 따라서 주요 정치가의 세계관과 자아관을 분석하면 그 국가의 외교정책 기저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동기를 알 수 있다. 정치가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자아관을 바탕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대외적 세계관을 자국에 유리하게 변화시키고 그 세계관에 맞는 외교행위를 일관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세계관은 이데올로기나 민족주의 등 다른 내부적 요소들보다 중국의 외교정책을 더욱 잘 설명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속적인 전망을 가능케 해주는 변수이다. 이데올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냉전시기의 상징적인 주요변수였고 중국정권이 세계정치질서에 도전하려는 성격이 강했을 당시 중국의 대외정책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탈냉전시대 이래 이데올로기는 그 설명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와 달리 중국의 세계관은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외교정책에 관한 지속적인 설명력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데 지속적인 핵심 변수로서 작용한다. 세계관이라는 개념은 중국외교정책의 변천과 타국가의 외교정책의 변화추세를 서로 비교할 때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현 중국 지도층의 대외인식 및 실제 행태를 이해하는 데도 유효하다.¹⁰⁾

중국의 세계관은 상당부분 전통 역사의 영향 아래 형성된 것이다. 중국 세계관의 4분의 3은 2000여년에 달하는 역사에서 비롯된 민족주의에 기반한 것이며, 나머지 4분의 1은 마르크스, 레닌 그리고 모택동 사상 등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 아래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¹¹⁾ 중국의 세계관에는 과거 역사 또는 이데올로기 요인 외에도 중국의 전통문화와 사상, 특히 도덕과 예법을 중시하고 엄하지만 인(仁)을 발휘할 것을 주장하고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무엇보다 중시하였던 유교사상이 심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유교는 중국 관료들이 반드시 구비해야 할 이데올로기로서 주로 계층적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더 나아가 중국의 정치, 문화,

10) 姜孝伯, 〈中共外交政策取向演變與其變數之研究(1982-1992)〉 國立政治大學 東亞研究所 박사논문 (台北: 1993), pp.63-64.

11) Walter S. Johns, 〈The Chinese Perspective〉, *The Logic of International Relations*, 5th edit, Boston: Little Brown Company, 1985, pp.135-157.

사회 전반에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상체계였다. 중국의 전통적 세계관은 한마디로 유교사상에 입각한 중화사상적 세계질서관인데, 중화사상이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한쪽은 하늘의 자식(天子)으로 자신들의 민족성은 타민족보다 우월하며, 그런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서 화해와 질서를 바탕으로 주변국가들을 다스린다는 사상이다.¹²⁾ 이러한 중국의 세계질서관,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 등은 주권을 기반으로 평등한 국가간의 전쟁 역사를 거듭해 온 서구의 세계관 혹은 대외질서관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하겠다.¹³⁾ 중국의 역대정권들은 대외관계를 유교에 입각한 중화세계관에서 비롯된 대외질서관에 부합하도록 맺고자 했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은 단호히 물리쳐야만 했으며 피지배민들이 자신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도덕적인 면모를 항상 갖춘 모습이어야만 했다. 이러한 중국의 전통적 세계질서관이나 통치스타일은 중국이 사회주의국가 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징벌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한 것이나, 자신의 권위 손상에 매우 민감한 것, 그리고 중국의 국내권력 투쟁과 대외정책간 쟁점이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있다는 사실에 일부 설명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¹⁴⁾

12) 중국의 전통적 세계관인 '오복(五福)세계관'의 예를 들자면 이는 중국의 수도에서 500리 떨어진 모든 국가들을 다섯 단계로 나누고 국가들의 친소를 구분하는 국제질서관이다. 패어뱅크는 그가 1968년 발표한 <The Chinese World-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에는 중국이 가장 중심이고, 그 다음이 주변국(Frontier) 지역, 한족(Sinic) 지역, 안쪽 아시아(Inner Asia) 지역, 바깥쪽 아시아(Outer Asia) 지역의 순으로 그려진 중국인들의 국제질서관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세계를 등분하는 세계관은 신중국 성립 이후에도 이어졌다. 마오쩌둥이 1974년 발표한 '3개세계론'에서 미국, 소련 등의 패권국가를 제1세계로, 일본, 유럽 등 선진국가를 제2세계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국가를 제3세계로 규정지은 바 있다. 또한 맑스와 마오쩌둥 사상에서 나온 '모순론의 세계관'이 주요 적인 제1세계를 반(反)으로, 그 다음적인 제2세계를 정(正)으로, 그리고 잠시의 동맹자인 제3세계를 합(合)으로 나누어 세계를 바라본 것도 이러한 전통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3) 서구의 국제관계학에서 말하는 소위 '적대감'은 서구의 냉전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며, 냉전은 이데올로기의 대항이 빚은 것이므로 그 속에는 애증적, 감정적 심리상태가 강하게 녹아있는 앓은 반면, 중국의 유교에 입각한 중화사상적 세계관, 그리고 그에 따른 지도자의 이미지 등은 모두 중국 지도자의 자아관과 역사적 지위 모두와 관련되는 매우 사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냉전에서 말하는 미움은 학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개개인의 마음에 그리 강렬한 것으로 다가가지 앓는 반면, 중국에게 있어 중국의 역사적 지위를 부정하고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침해하는 행위는 극한 증오와 미움을 낳는 것이라는 것이다. Cottam Martha, *Images and Intervention*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94 참조.

14) 姜孝伯, *op cit.*, p.65.

3) 역할관

국가역할관은 변화하는 시대에 사는 국가들이 이 거대한 세계, 자국을 둘러싼 국제환경 속에서 자국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생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 개념은 일국이 국제무대에서 가지는 사명감, 국가간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 그리고 특정한 정의질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⁵⁾ 정치가는 국가가 해야 한다고 기대되는 역할관에 따라 외교행위를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국가의 대본이 의의를 갖게 된다고 한다. 즉 정치가의 자아이미지와 그들이 갖고 있는 국가의 위치 및 역할에 대한 관념은 서로를 강화시키며 서로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스즈위(石之瑜)는 에데리지와 케르첼의 “외교는 대본에 따른 정치가의 연극”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그들이 정치가의 정치행위가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문화가 배경으로 작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치가들이 그러한 연극을 하는 것은 순전히 국민을 조종하려는 것이라기보다 정치가 자신도 자신의 배역 및 역할의 외교적 가치를 마음속 깊이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임으로써 두 사람에 비해 대위행위에 미치는 문화의 심층적, 근원적 기능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의 자아관을 형성하고 세계관을 실현하며 자국의 도덕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역할관을 강하게 인식해 왔으며 이것은 중국외교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중국의 역할관을 결정짓는 주요요인으로는 중국의 전통적 유교문화에서 비롯되고 중국의 대외행위를 관통하는 도덕성(Morality)에 대한 특별한 주의, 그리고 신중국 성립 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Socialism Ideology)를 들 수 있다. 스즈위에 따르면 중국이 사회주의와 도덕적 면모 이 양자를 견지하기 위해 반드시 반제국주의의 역할 및 반패권주의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자아관’, ‘세계관’, ‘역할관’이라는 개념들, 즉 문화심리적 요

15) 石之瑜, 《中共外交政策的理论与实践》, (台北: 三民书局, 1994), p.26.

인들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당시의 전개 과정을 통해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Ⅲ.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분석

1) 참전 결정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소련과 중국의 승낙 하에 38선을 넘어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결성되고 유엔군보다 먼저 미군이 한반도에 도착하면서 한반도는 전쟁의 화염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전쟁발발 직후부터 북한군에 대한 지지태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이는 구두상의 응원에 그치는 것이었으며 실제로 어떠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8월1일 건군절에 인민해방군 총사령관 쑤더(朱德)는 대만해방의 결심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북한인민에게 성원입장을 표명했으나 이는 구두상의 표현에 불과하였고, 마오쩌둥도 8월 14일 북한에게 전보를 쳐 매우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다만 응원에 불과했을 뿐 실질적인 군사 지원의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이같은 중국의 행태는 당시 중국이 처한 시대적 배경으로 분석가능하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중국이 실제로 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인 것이었다. 우선 한국전쟁 발발 이전 8년에 걸친 대일항전 및 3년에 걸친 국공내전은 국가경제의 파탄과 엄청난 사회 혼란을 야기시켰다. 화중, 화남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사업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새로 성립된 정권은 정통성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이 외에도 대만 및 티베트의 해방세력을 진압해야 하는 등 당시 신중국이 당면한 국내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사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을 도모하는 장기적 재건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겨졌다. 중국의 군사력은 서구의 현대화된 군사력에 비해 매우 빈약했다. 특히 한국전 개입은 서구와의 관계를 파

괴하고 유엔 진입의 기회를 사실상 상실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의 국익에 불리한 것이었다. 더욱이 소련이 북한의 지원요청을 거절한 상태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중국이 무력을 동원하여 한반도 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무모하고도 비합리적인 것이었던 것이다.¹⁶⁾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참전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 서구의 합리주의자들이 상정하는 전략적 사고 및 행위들 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이외에 중국 고유의 문화심리적 요인들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10월 마오쩌둥의 주재하 한국전쟁 개입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격론이 벌어졌을 때¹⁷⁾ 참전반대론 및 유보론이 적잖은 상황에서 마오쩌둥이 “이런 중대한 시기에 결심을 내리지 않으면 북한이 미국에 의해 점령될 뿐 아니라 중국건설 자체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쑹더화이(彭德懷)도 “참전은 필요한 것이다. 싸워서 지면 해방전쟁의 승리가 몇 년 늦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는가! ...(중략)... 호랑이는 언젠가는 사람을 먹는다. 내가 보기에 미제국주의와 크기를 재보지 않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려 한다면 어려울 것이다.”¹⁸⁾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중국이 신생 사회주의 국가의 확립을 위해 한국전 참전을 이용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특히 신생국가인 중국이 국가 확립 및 번영에 반드시 필요한 자신의 자아관, 역할관 및 세계관을 형성시키려는 과정이 중국의 한국전 참전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직후 마오쩌둥(毛澤東)은 국가성립 직후 동서냉전 구도를 소련을 위시로 한 신민주주의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동진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양대진영론적 세계관을 표출하였다. 또한 신중국은 전자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자아관을 확립하려는 모습이 었다.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자아관 형성 및 대소일변도 정책의 시행은 신국가 성립 이후 황폐해진 내정을 복구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소련

16) 石之瑜, (1995) p.282.

17) 중남해에서 당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려 참전결정에 대한 찬반토론이 벌어졌을 때 회의 참가자들 중 상당수가 참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재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 제17권, pp.43-44.

18) 《彭德懷自述》, (北京: 人民出版社, 1981), p.257.

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였다. 이는 국가최고수반인 마오쩌둥이 국가 수립직후 국가를 2개월 동안이나 비우며 소련을 방문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이는 당시 혼란한 정세속에서 국가의 생존 및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주의 신생국으로서의 자아관 및 세계관을 확립하려는 의도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또한 주목할만한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데 1949년 중국대륙이 공산화되기 이전의 일정기간, 그리고 공산화 직후 초기단계에 이르기 까지 중국은 미국을 명백한 적국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¹⁹⁾ 국공내전기간만 보더라도 중국은 소련의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이 국민당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만 하면 미국과 관계 정상화 용의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암시하였고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원하는 모습이었다.²⁰⁾ 미국도 1948년 대만에 대한 지원 정지, 이듬해 한국에서 철수 개시, 군사지출 및 해외주둔군 규모의 감축, 1950년 1월 5일 트루먼 대통령의 대만 불개입 입장 천명,²¹⁾ 애치슨 선언에서 대만과 한국을 미국 방위선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미국은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으며 한반도 및 대만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즉 중국의 세계관 속에서 자신과 미국은 서로 명백히 대립 및 충돌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자아관 속에는 미국에 대한 명확한 적개심 또는 위협감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기에 중국은 한국전쟁 발발 초기 북한에 대한 지지입장 표명에만 머물렀고 직접적인 무력제공 또는 미국에 대한 도발적 행태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도 점차 국내적으로 미국의 대만 및 한반도 침략을 비난하는 반미군중운동을 전개

19) 미국도 국민당과 공산당간 치열한 내전이 전개되는 동안 국민당에게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당과 공산당간 합작을 원조함으로써 중국대륙의 정세를 안정시키려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였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될 때까지 미국은 공산당을 완전 배제하지 않았었고 중국의 '티토화'정책을 추구했던 것이다. 정용욱, 〈6·25전쟁기 미·중관계〉,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역사학회 엮음, (일조각, 2006), p.452.

20) 박홍서,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중국의 대한민국 군사개입 연구: 1592년, 1627년, 1894년, 그리고 1950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1호 (2006. 봄).

21) "1943년 12월 카이로 선언에서 일본이 빼앗은 중국영토 타이완은 중국에 귀속한다고 공표하였고...일본이 항복하면서 타이완은 이미 중국에 귀속되었다. 현재 미국은 타이완에서 특별한 권리를 획득하거나 군사기지를 건설할 의사가 전혀 없고 미국은 현 상황에 대해 무력을 통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정용욱, 2006. p.454에서 재인용.

시키기 시작했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전세가 역전되는 8월까지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주로 선전 및 구두상의 언급에 머물러 있었다.²³⁾ 소련의 영도하 신민주주의진영의 충실한 성원국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반제국주의적 자세만을 강조하는 데에 그쳤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선화하고 참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중국의 대미 위협인식 변화 및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반제국주의 역할관 강화가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8월이래 한반도의 전세가 역전되고 중국이 느끼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증폭되면서부터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의 행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미 전쟁 발발 직후인 6월 27일 미국이 대만으로 항공모함을 급파한 사건은 사회주의국가로서 반제국주의라는 중국의 역할관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중국에게 대만문제는 신생독립국가로서의 정체성 및 주권에 해당하는 민감한 사안이었으며 이미 1950년 5월 해남도를 점령함으로써 대만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다. 그해 봄 다수의 서방 군사관측가들은 중국이 7월 혹은 8월에 대만을 공격할 것이며 이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었다.²⁴⁾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급파는 제국주의국가로서의 미국의 이미지를 중국에게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의 사회주의적 세계관 및 반제국주의적 역할관은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7월 6일 쯔우언라이(周恩來) 외교부장은 유엔사무국장에게 전문을 보내어 “대만은 중국과 분리할 수 없는 중국의 일부이며 미국정부가 어떤 형태의 군사적 방해물 하더라도 중국 인민은 반드시 대만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²⁵⁾ 7월 28일 마오쩌둥도 분노한 기세로 트루먼 대통령이 일찍이 1월

22) 〈毛泽东的谈话〉 pp.7-8, pp.66-67.

23) *Ibid.*, pp.9-11.

24) Robert Simmons, *The Strained Alliance: Peking, Pyongyang, Moscow and the Politics of the Korean Civil War* New York: Free Press, 1975, pp.124-126. 1950년 노동절 리유샤오치(劉少奇)는 연설을 통해 “대만 해방 이후 적의 봉쇄 및 공격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고, 국가의 준비지출 또한 대폭 감소할 것이며, 중국이 경제건설을 위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 시기 국가경제를 위해 더욱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5)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27일 조선에 대한 무장간섭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쯔우언라이 외교부장이 국제연합 사무총장 리에게 보낸 전보〉, 1950. 7. 6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한국전쟁과 중국》 I,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2002), pp.12-13.

5일 타이완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모두 기만이었고, 미국이 제국주의적 면목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였다.²⁶⁾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 파견을 미국의 대중 적대정책의 결정적 증거로 간주하게 되었고, 이후 미국의 위협에 대항할 것임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하였다.²⁷⁾ 8월 20일 쉰우언라이(周恩來)가 유엔이라는 공식석상에서 처음 “중국인민들은 한반도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²⁸⁾ 그는 또한 미국이 중국대륙을 폭격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유엔이 미국을 제재해줄 것을 요구했다.²⁹⁾ 이때 미국도 강경한 입장으로 응수했다. 미국대사 오스틴은 유엔군의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승리라고 천명했으며, 맥아더는 8월 25일 “대만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발언하여 중국을 더욱 자극시켰던 것이다. 1950년 9월 후반기부터 중국의 태도는 적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9월 25일 중국의 총리보좌관 열중칭(兒仲誠)은 주미인도 대사 파니카(Pannikar)에게 중국은 절대로 미국의 국경 침범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³⁰⁾ 쉰우언라이도 9월 30일 공개적으로 미국에게 “중국은 국내재건 및 발전에 필요한 평화를 당연히 추구하지만, 중국인민들은 외부의 침략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이 중국의 이웃을 침략하는 것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³¹⁾ 중공중앙정치국회의가 10월 5일 “항미원조(抗美援朝), 보가위국(保家衛國)”의 전략적 정책결정을 내린데 이어,³²⁾ 10월 7일 미군이 38선을 넘는 직후 10월 13일 중국은 군사개입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은 국가의 역할관이라는 국가성립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국주의 반대”라는 자신의 역할관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으며 또한 이때부터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자신을 도덕적으로 변호하고 참전명분을 합리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우시우첸(伍修權)은 유엔 안보리 회의석상에서 대만과 북한의 관련성에 관해 설명하고,

26) 〈毛泽东的谈话〉, 《伟大的抗美援朝运动》, (北京: 新中國 书局, 1954), p.3.

27) 6월 29일 《인민일보》 참조.

28)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r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p.92.

29) 《伟大的抗美援朝运动》, p.17

30) Whiting, p.84.

31) Whiting, p.93.

32) 정용욱, p.460.

미국이 그 둘을 결합시켜 중국대륙에 침략위협을 조성하는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제7함대를 어떻게 대만해협에 진입시켰는지, 맥아더가 대만에 대해 뭐라고 발언했는지, 그리고 일본, 북한, 필리핀이 어떻게 침략계획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분노한 중국인민들이 어찌 지원군을 북한에 보내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2주 후 같은 장소에서 만일 미국인이 태평양을 넘어 북한을 치고 중국대륙을 포위할 수 있다면, 중국도 국경을 넘어 제국주의자의 공격에 저항하는 이웃을 돕는 것을 제지할 그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³³⁾ 이처럼 중국이 참전결정의 과정 속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협감 증폭 및 반제국주의라는 역할관 증대가 함께 수반되고 있었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미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미군의 38선 월경 직후 중국의 참전여부가 결정된 사실은 그러한 분석을 뒷받침 해준다. 그러나 이 외에도 이는 내외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자신의 사회주의 자아관 및 양대론적 세계관, 그리고 그에 기반한 반제국주의적 역할관을 명확히 확립함으로써 국가 건설의 장기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심도 있게 작용한 것이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2) 참전 이후

어려운 참전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인민해방군이 아닌 인민지원군의 명의로 참전함으로써 미국과의 국가 대 국가간 대결을 회피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중국의 무력행태는 개입 초기 소련의 무기가 도착하길 기다리며 방어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군 전투기가 처음으로 압록강 상공에 날아오른 날 중국은 적과의 접촉을 멈추고 상대의 반응을 살폈다. 초기 소극적 분쟁양태를 보였던 중국

33) 《伟大的抗美援朝运动》, pp.47-61, pp.69-81.

은 그러나 예상 외로 11월 초와 12월 초 두 차례 전역이 모두 중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기존의 대외행태 및 의도에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였다. 마오쩌둥은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더욱 더 강력한 공격으로 38선 이남으로 진출할 것을 중국군에게 지시하였다.³⁴⁾ 따라서 중국은 12월 5일 중립국가들의 정전제의를 거부하고 1951년 1월 대공세를 펴 유엔군을 한강 이남까지 밀어붙였다. 이에 1월 13일 유엔이 중국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새로운 평화계획을 재차 제출하며 교전국들의 정전을 종용하였지만 중국은 이 또한 거부하였다. 즉 한반도 전체를 수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다. 이같은 중국의 변화된 대외행태에는 군사적 승리의 확신을 바탕으로 영토의 확장이라는 현실주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되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신생국으로서 중국의 자존감이 크게 증강되었으며 자아정체성 또한 보다 굳건하게 확립되는 계기로 작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오쩌둥은 1951년 정치협상 회의석상에서 “위대한 항미원조투쟁은 미국정부가 평화방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반드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중략)...소련이 영도하는 위대한 평화진영은 무적의 진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³⁵⁾

그러나 이후 미국의 대반격이 이어지며 중국은 다시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중국군이 참패를 당하고, 미국이 1951년 2월 1일 유엔총회에서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중국을 소련의 꼭두각시로 취급, 독립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려는 입장이 더욱 강화되는 등 중국의 상황이 다시 불리해지기 시작했다. 중국은 4월 제5차 공세를 폈으나, 이 또한 실패하면서 중국이 다시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이때 중국의 대외 행위양태를 보면 여기에는 여전히 문화심리적 요인들이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정전협상의 과정이다. 1951년 6월 24일자 소련의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에 “소련이 유엔에 휴전협정을 제의함으로써 마오와의 약속을 지켰다.”³⁶⁾라는 내용이 있는 것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도 휴전을 선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반격에 따라 전세가

34) 정용욱, p.462.

35) 《伟大的抗美援朝运动》, pp.139-141.

36) <6.25내막/모스크바 세종연 20>, 《서울신문》1995. 7. 7.

역전되고, 또 다시 38선을 경계로 양 진영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측은 정전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때 주목할만한 사실은 양측의 정전협상 과정에서 영토나 배상문제가 아닌 전쟁포로 송환방식에 대한 이견이 바로 양측의 정전협상을 장장 25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끌게 만든 주요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동송환원칙과 중국의 자동송환원칙이 대립되며 이 문제는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간 체제의 우열을 겨루는 미묘한 정치적 장으로 변모했던 것이다. 4만 여 명의 중국군 포로 가운데 4분의 3이 조국으로의 송환을 원치 않는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중국은 크게 당혹했다. 조국으로의 송환을 원치 않는 자들은 처음부터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중국의 사회주의국가 자아관과 반제국주의 역할관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조속한 협상타결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포로송환방식 문제에 집착했으며 따라서 회담은 1년 이상 지연되었다. 결국 송환대상 포로들을 중국측이 일정기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과정이 확보되고서야 정전 협상이 타결되었다.

둘째,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정전협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국내 승리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한반도 무력통일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미국에 승리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선전하는 모습이였다. 1951년 8월 건군절시 평터화이(彭德懷)는 한국전쟁의 교훈에 대해 말하는 자리에서 미군이 무슨 우세한 현대장비, 대량의 탱크와 대포를 가지고 있냐고 비웃었다. 그는 중국 지원군은 탱크도 없고 공군도 없고 겨우 소형 화포와 보병뿐인데도 적에 패하지 않고 도리어 승리했다라고 단언했다.³⁷⁾ 쩌우언라이는 전쟁을 통해 반혁명을 진압하고, 미군을 압록강에서부터 38선을 넘어 돌아가게 만든 것을 승리의 사례로 들며 이를 치하했다. 1952년 구정 평터화이는 귀국한 참전용사들의 각종 성과들을 재차 치하하였다.³⁸⁾ 그리고 이 같은 기반 위에서 중국은 인민들을 대상으로 애국교육을 강화하였다. 1951년 10월 평쩰(彭眞)은 대중의 애국교육 심화를 요구했다. 국가지도층이

37) 石之瑜, 《中共外交政策的理论与实践》, (台北: 三民书局, 1994), pp.114-116.

38) *Ibid.*, pp.181-183.

일반대중들의 정치의식 강화를 꾀하고 애국심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공산당이 이미 정통성 획득상 일정한 자신감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에 공산당이 이미 통치를 위한 기반을 닦아 나아감을 의미한다. 이같은 자신감에 기반하여 중국의 자아관 및 세계관은 더욱 발전 및 확대되는 모습이 었다. 1951년 쑨원총리가 “소련은 중국을 대신해 발언할 수 없고, 이 세계에는 두 가지 완전히 서로 다른 노선이 있는데 어떠한 국제문제도 소련과 중국이 동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의 있는 해결을 이룰 수 없다”³⁹⁾라고 발언한 것, 1953년 2월 그가 모스크바와의 협력을 다시 찬양하는 자리에서 무력을 통한 반침략투쟁은 중국의 국제지위를 크게 제고시켰고 소련이 지도하는 진영을 강화시켰다고 찬양한 사실, 그리고 1953년 8월 건군절에 쑨더(朱德)가 한국전쟁의 의의는 서구 침략자들이 서구의 대포로 동방국가를 점령하던 시대가 이미 지나갔으며 더욱이 영원히 지나간 데에 있다고 하며 신식무기가 무소불위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며 제국주의 사상은 철저히 유린되었다고 밝힌 것⁴⁰⁾ 등 일련의 사실들은 모두 건국 초기 자신을 자유주의 진영과 대립되는 사회주의진영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또한 소련이 영도하는 위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일부라고 여겼던 중국의 소극적 자아관이 한국전 참전을 계기로 스스로를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중요한 공동역할을 하는 주요국가, 혹은 한발 더 나아가 양대 진영의 중간지대에서 지도자적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라고 여기는, 보다 자신감 있고 확대된 자아관으로 발전되었음을 나타내는 사례들이라 분석할 수 있다. 실제로 한반도전쟁이후 1954년 쑨원총리는 반동 회의에서 중국을 크게 부각시켰고, 중소분쟁이 발발한 이후 자신을 중간지대국가의 친구라고 여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중국의 자아정체성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39) *Ibid.*, pp.176-177.

40) *Ibid.*, p.392.

IV. 결론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과정에 대한 분석은 국가의 자아관, 세계관, 그리고 역할관이라는 문화심리적 요인이 일국의 대외행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내전으로 황폐해진 신생독립국 중국이 당시의 최강대국 미국을 적으로 과감히 전쟁터에 뛰어들어 행위는 결코 합리주의자들이 상정하듯 자신의 세력을 팽창하거나 영토를 넓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대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 신생국가가 자신의 생존 및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국가 자아관 및 세계관을 형성 및 확립하고, 변화된 환경에 따라 자신의 세계관을 확대시키며 자국에게 기대되는 역할관에 따라 이를 밖으로 체현해낸 역동적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하겠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리를 드러내지 않는 무아관념, 그리고 도덕적 위신을 중시하는 중국의 모습 또한 엿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중국의 한반도전쟁 참전에는 비도덕적 세력의 원천을 제거하여 자국의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신생 국가로서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한, 즉 매우 비현실적이고 상징적인 의도가 문화심리적 요인으로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향후 발생할 중국이 개입된 모든 분쟁사태들이 중국이 타국보다 약한 상태에서 타국이 주는 자극에 의해서만 일어날 것이며, 또한 영토 획득, 생존 보존 등의 현실주의적 의도에 비해 중국의 자아관, 세계관 및 역할관의 형성 및 변화에 따른 상징적 의도가 월등히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실제로 중국은 강경한 원칙성을 추구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고도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이중성을 보여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성립된 이래로 중국은 비록 줄곧 현 국제정치질서의 재편성을 부르짖어 왔으나 이를 추구하기 위한 중국의 외교형태는 일관되지 못해왔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중국의 외교정책과 원칙을 비일관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국의 대외정책 및 행위, 특히 무력정책 및 행

위에 미치는 문화심리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드러냄으로써 일국의 대외정책에 미치는 문화심리적 접근법의 유용성을 드러내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틀 및 방법론은 중국의 외교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다른 나라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중국 그리고 특정시기 외교정책을 하나의 사례로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를 구성하는 방법론 및 가설은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그 적용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參考文獻》

- 박홍서,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연구: 1592년, 1627년, 1894년, 그리고 1950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1호 (2006. 봄).
- 이완범, 〈중국군의 참전이전 미중관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정용욱, 〈6·25전쟁기 미·중관계〉,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역사학회 엮음, 일조각, 2006.
- 지재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 제17권.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27일 조선에 대한 무장간섭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저우언라이 외교부장이 국제연합 사무총장 리에게 보낸 전보〉, 1950. 7. 6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한국전쟁과 중국》 I,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2002.
-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 Cottam Martha, 〈Recent Development in Political Psychology〉, eds by Cottam M. L and Shih Chi-Yu : *Contending Dramas*, (N. Y, Praeger press), 1992.
- Cottam Martha, *Images and Intervention*,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94.

- Johnathan H. Turner: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吳曲輝譯: 社會學理論的結構 (台北: 桂冠), 1992.
- Lucian W. Pye, *The Dynamics of Chinese Politics*. (Cambridge: Oelgeschlager, Gunn & Han), 1981.
- Robert Simmonds, *The Strains of Alliance: Peking, Pyongyang, Moscow and the Politics of the Korean Civil War* (New York: Free Press), 1975.
- Shi Chih-Yu, *China's Just World*. Lynne Rienner Publishers. 1993.
- Valerie M. Hudson, <Culture and Foreign Policy: Developing a Research Agenda> in Valerie M. Hudson ed. *Culture and Foreign Policy*,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1997.
- Walter S. Johns, <The Chinese Perspective>, *The Logic of International Relations*, 5th edit (Boston: Little Brown Company, 1985).
- 石之瑜, <論當代政治心理學思潮中的認同問題>, 《國立台灣大學中山學術論叢》第11期 1996. 3.
- 石之瑜, <白魯恂中國觀的評述>, 《美國月刊》第八卷 第六期, 1993. 6.
- 石之瑜, 《中共外交政策的理論與實踐》 台北: 三民書局, 1994.
- 張鄧及, <中共的世界觀與其對外政策的演變-歷史整體的詮釋與理念型的說明>, 國立台灣大學 政治學研究所 碩士論文 台北:1994.6.
- 姜孝伯, <中共外交政策取向演變與其變數之研究(1982-1992)> 國立政治大學 東亞研究所 博士論文 台北: 1993, pp. 63-64.
- 《彭德懷自述》北京: 人民出版社, 1981.
- <인민일보> .

《中文提要》

本文的目的在于分析和解释文化心理因素对于中国对外行为所起的影响。本文假定来源于一国历史, 传统文化, 价值观念等的政治文化因素必定影响着其国家的外交, 而国家的对外行为尤其是武力介入等极端行为就无法光靠行为者的理性和权力标准来予以说明。为了检验此假定, 本文试图把中国的自我认同, 世界观以及国家角色观当成三个文化心理变数, 来说明和分

析中国在1950年爆发的韩战介入过程。介入过程分为两端，第一是战争爆发后决定参战为止，第二是从参战到停战的期间。

分析结果，笔者发现，不管是对参战决定还是对参战过程，文化心理因素确实起了不可疏忽的影响。中国为了保持自己的生存和确立新生国家所必须具有的自我认同，有意地加强和发展了自己的社会主义认同和两大阵营世界观，也积极地展开了作为社会主义国家必须要做的反帝反霸角色。同时，中国使言辞上的主导力量，可以透过道德诉求的建立而进一步的创造和巩固政府的合法性。从某种意义上看，可见理想主义与现实主义可以说是一体的两面。

關鍵詞：武力介入，国家自我认同(National Identity)，国家世界观(National World View)，国家角色观(National Role Conception)，韩战。

이 논문은 2008년 5월 20일에 접수되어 2008년 6월 2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8년 6월 2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